

女性疾患의 원인으로 痰飲에 對한 고찰

하지연, 장희재, 조정훈, 이진무, 이창훈, 장준복, 이경섭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ABSTRACT

Women's diseases recognized by the Dam-eum.

Ji-Yeon Ha, Hee-Jae Jang, Jung-Hoon Cho, Jin-Moo Lee,
Chang-hoon Lee, Jun-Bock Jang, Kyung-Sub Lee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Seoul, Korea

Purpose : Dam-eum and women about this disease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research is not developed encounter the report. The purpose of this disorder is associated with women with Dameum how to evaluate the affects around Donguibogam Search and compare some of the knowledge gained, are reported.

Methods : Donguibogam focused on search and related papers were.

Results : In Donguibogam Dam-eum(痰), Yoen(涎), Eum(飲) to distinguish, but the reason was that one, 痰 飲 sap needed to nutritious the body, such as a material or normal for various reasons by the sap from the leaves to cause disease states may be the cause .

Conclusion : Digestive, respiratory-related, but now the recognition of the Dameum changes in diet and lack of exercise, stress, lifestyle diseases due to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as a Dameum and women in the pathogenesis of disease high enough proportion of the treatment for Dameum Applications will be denied a lot of disease is considered.

Keywords : Donguibogam, Dameum, Women's diseases

교신저자(장준복)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부인과

전화 : 02-958-9162. 이메일 : junbock@hanmail.net

I. 서론

痰飲이란 津液이 정상적인 運化를 하지 못하여 체내에 머물러 쌓여 있는 병리 산물이다. 이는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결과로 발생되는 병적 상태이다¹⁾.

근래에 狹義의 痰飲은 胃에 凝聚되고 肺에 有關되어서 咳唾, 嘔吐, 清稀濁하는 일종의 분비물과 喉間, 胸膈 등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腸間에 漉漉有聲하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廣義의 痰飲은 체내에 流滯된 水飲病의 總稱이며 人體臟腑 失調와 經絡과 榮衛氣機의 不利, 三焦水道不通으로 津液停滯되고 火熱煎熬를 입어 稠濁痰涎을 이루어 실질적인 형태는 볼 수 없으나 頭目眩暈, 惡心嘔吐, 心悸氣短, 神昏, 癡狂 등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無形의 痰飲을 포괄한다^{2,3)}.

痰飲으로 인한 여성 질환을 《東醫寶鑑》⁴⁾에서 살펴보면 經帶胎產에 有關한 조문, 癥瘕積聚, 乳房疾患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피부, 비만에 관한 미용에 관한 조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氣病이 생기기 쉬우며 七情鬱結로 氣의 순환 장애가 생겨서 痰飲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여성 질환에서 痰飲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痰飲과 여성 질환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보고를 접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여성 질환과 관련하여 痰飲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검색하고 諸論文을 비교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東醫寶鑑》에서 痰飲이 병인으로 여성 질환과 有關한 문항을 검색하였다. 經帶胎產의 분류로 나누고, 기타에서 여성 특유의 질환은 아니지만 여성에게 나타나기 쉽고 관심을 갖는 질환

을 조사하였다.

1. 月經

◎ 王隱君痰論 ○ 痰證 古今未詳... 婦人則經閉不通...

◎ 通血治法 ○ 氣上迫肺 月事不來 宜導痰降火 則心氣下通 而月事來 宜通經湯 ○ 濕痰粘住經閉者 導痰湯 加川芎當歸黃連 不可服地黃

◎ 和血治法 ○ 痰者 有水渾之也. 二陳湯 加川芎當歸 一云色淡者 氣血俱虛 宜八物湯 ○ 如烟塵水者 如屋漏水者 如豆汁者 或帶黃者 濕痰也. 二陳湯 加秦艽防風蒼朮

2. 帶下

◎ 帶下治法 ○ 帶與漏 俱是胃中痰積流下 滲入膀胱 出於大小腸 宜升提之 甚者上必用吐 下用二陳湯 加蒼白朮升麻柴胡 或蒼柏檮皮丸 ○ 肥人白帶是濕痰 宜蒼柏檮皮丸 瘦人是熱 宜芩檮皮丸 通用補經固真湯 白斂元補宮丸 四神丸 清白散 ○ 帶下必須斷厚味

3. 妊娠

◎ 求嗣 ○ 生人之道 始於求子 求子之法 莫先調經 每見婦人之無子者 其經必或前或後 或多或少 或將行作痛 或行後作痛 或紫或黑 或凝而不調 不調則血氣乖爭 不能成孕 ○ 無子婦人瘦怯者 乃子宮乾澀 宜滋陰養血 四物湯 加香附黃芩 肥盛軀脂滿溢子宮 宜行濕燥痰 南星半夏川芎滑石防己羌活 或導痰湯

◎ 淫邪發夢 ○ 一婦人 常夢與鬼神交 驚怕異常 及見神堂陰司舟楫橋梁 如此十五年 竟無妊娠 諸治無效 戴人曰 陽火盛於上 陰水盛於下 見鬼神者陰之靈 神堂者陰之所 舟楫橋梁水之用也 . 診之兩手寸脈皆沈而伏 知其胸中有痰實也. 凡三涌三世三汗 不旬日而無夢 一月而有娠

◎ 惡阻 ○ 惡阻謂有孕而惡心 阻其飲食者是也多從痰治 肥者有痰 瘦者有熱 ○ 瘦人熱 肥人痰 俱宜二陳湯 加竹茹生薑 熱加芩連... ○ 惡阻宜用 半夏茯苓湯 芩連半夏湯 歸原散 竹茹湯

◎ 轉脬證 ○ 轉脬證候 孕婦多有之.... ○ 胎婦轉脬之病 稟受弱者 憂悶多者 性急躁者 食味厚

者 大率有之... 一婦患 此診之兩手以瀹 重取則弦 此得之憂患 瀹爲血少氣多 弦爲有飲 遂以四物湯加參朮半夏陳皮甘草生薑 空心煎服 隨以指探喉中 吐出藥汁 痰少頃 又與一貼 次早亦然...

4. 出產

◎ 產後不語 ○ 痰熱迷心 不語者 宜孤鳳散

◎ 產後風痙 ○ 產後痙 因虛遇風 挾痰而作 宜服人參竹瀝之類 又竹瀝一升頻服大效 ○ 產後中風 必當大補氣血 然後治痰 切不可作中風治 而用發表出汗之藥 八物湯 加減用之爲可

5. 癥瘕

◎ 腸覃石瘕血蟲證治 ○ 腸覃乃寒氣客於大腸 與胃相搏 結而爲瘕 覃延日久 瘕肉乃生 始如卵卵 久如懷胎 按之堅 推之移 月事時下 或多或少 此氣病而血未病也 宜二陳湯加香附三稜蓬朮蟹甲並醋炒

◎ 癥瘕疝瘕證治 ○ 癥者 堅而不移 瘕者 堅而能移 皆因痰飲食積死血而成塊 積聚癥瘕疝瘕 其實一也 ○ 積者跡也 挾痰血以成形跡 亦鬱積至久之謂也 聚者緒也 依元氣以爲端緒 亦聚散 不常之意也

6. 乳房

◎ 乳癰 ○ 多因厚味 濕熱之痰 停蓄膈間 與滯乳相搏而成

7. 기타

◎ 驚痰 ○ 因驚 痰結成塊 在胸腹 發則跳動 痛不可忍 或成癩癧 婦入多有之 宜妙應丹 滾痰丸

◎ 面上雜病 ○ 風客皮膚 痰漬藏府 則面生黚黯 脾肺風濕搏 熱則生瘡 紅紫或腫 升麻胃風湯 加減用之

◎ 諸疔治法 ○ 疔痛屬濕熱 痰積 流下作病 因寒鬱而發也

◎ 鬚髮黃落 ○ 一婦年少 髮盡脫 不留一莖 脈微弦而瀹 此由厚味成熱 濕痰在膈上 而熏蒸髮根之血 漸枯而脫 用防風通聖散 去芒硝 惟大黃三度 酒炒 兼以四物湯酒製 合和作小劑煎以服 兩月 濕

熱漸解 停藥淡食 調養一年而復舊

◎ 梅核氣 ○ 七情氣鬱 結成痰涎 隨氣積聚 堅大如塊 在心腹間 或塞咽喉 如梅核粉絮樣 咯不出 嚥不下 每發欲絕 逆害飲食 宜四七湯

◎ 痰飲 ○ 痰飲者 水停腸胃 漉漉有聲 令人暴肥暴瘦 宜神朮丸

◎ 肥瘦用藥 ○ 肥人氣虛多痰 宜豁痰補氣 瘦人血虛有火 宜瀉火滋陰

III. 고찰

痰飲이란 체내의 과다한 수분이 일부분에 停聚하여 생성된 穢濁한 膠液性 水毒으로서 일종의 비생리적인 분비물을 의미한다⁵⁾. 痰飲은 일반적으로 有形과 無形の 痰飲으로 나누는데 有形的 痰飲은 咳吐하여 나오는 痰濁과 呼吸氣道에서 분비되는 痰液을 지칭하며 無形の 痰飲은 痰飲으로 일어나는 특수한 질병이나 頭目眩暈, 惡心嘔吐, 腫塊, 心悸氣短, 神昏, 癲狂과 같은 증상을 말한다. 이런 痰飲은 形을 볼 수 없으나 痰飲으로 생각하고 치료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無形の 痰飲이라고 한다^{1,2)}.

痰證은 《內經》⁶⁾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痰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水飲', '積飲', '飲發'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仲景의 《金匱要略》⁷⁾에서 처음으로 痰飲·溢飲·支飲 등으로 설명하여 痰飲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나왔다고 보고 있다.

《東醫寶鑑》⁴⁾에서는 痰, 涎, 飲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 이치는 하나라고 하였으며, '痰者 津液之異名 人之所恃以潤養肢體者也'라고 하여 痰飲이 인체를 자양하는 필요한 진액과 같은 물질이나 여러 원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진액 상태에서 벗어나면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痰飲의 원인은 脾虛로 運化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虛證 범주, 수분의 과잉섭취, 飲酒過多나 傷冷 등의 飲食傷, 外感風寒暑濕邪, 七情所傷, 勞倦傷 등으로 볼 수 있으며⁵⁾, 《東醫寶鑑》⁴⁾에서는 "人有七情 病生七氣 氣結則生痰 痰盛則氣愈結", "七情氣鬱 結成痰涎 隨氣積聚"라고하여 七情으로 인한 氣의 運행에 문제로 인하여 발생

하며, “〈氣痛〉... 多因七情飲食 鬱爲痰飲” “一婦年少 髮盡脫 不留一莖 脈微弦而瀦 此由厚味成熱 濕痰在膈上 而熏蒸髮根之血 漸枯而脫” 등의 飲食不節로 인한 痰飲, “脾胃氣虛 則不能運化水穀 水穀停積 則爲濕痰” 등의 장부의 허약으로 인한 痰飲, “夫熱而怫鬱 則生濕也 因濕生痰 故用二陳湯 加酒芍羌活防風 去風行濕 盖風能勝濕也” 라고 하여 濕으로 인한 痰飲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七情이나 飲食傷으로 氣의 운행에 문제가 생기면 濕이 쌓이기 쉽고 결국 痰飲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옛부터 十病九痰⁸⁾, 百病 皆生於痰⁹⁾이라 하였고 《東醫寶鑑》⁴⁾ 〈痰飲門, 王隱君痰論〉에서도 痰飲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나열하였다. 痰飲을 형성하는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그 병이 복잡하고 변화가 다양한데 김¹⁰⁾은 痰飲의 증상을 총괄하여 정신과 증상, 신경과 증상, 안과 증상, 구강 및 인후과 증상, 鼻 및 耳科 증상, 심장 및 혈액·혈관계통 증상, 소화기계통 증상, 호흡기계통 증상, 비뇨기 증상, 골격 및 관절계통 증상, 외과 증상, 기타 부인 및 소아과 증상 등으로 구분하여 많은 질환이 痰飲으로 발생함을 설명하였다. 진단상에서 外證으로 보는 痰飲 증상은 “尺膚龜如枯魚之鱗者 水溢飲也”, “凡有痰者 眼皮及眼下必有烟灰黑色”, “一切痰證 食少肌色如故”, “肥人多是痰飲” 등이 있다.

痰飲의 치료로는 《東醫寶鑑》⁴⁾에서 “實脾土 燥脾濕 是治其本” “治痰順氣爲先 分導次之...”가 기본이 되면서 形氣와 病氣가 有餘한 경우는 汗, 吐, 下로 攻之할 수 있지만 挾寒, 挾虛, 血氣虧乏 등의 虛證이 많으니 補法을 겸하여 本治와 隨證治之를 적절히 응용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痰飲은 여성 질환에서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男子屬陽 得氣易散 女人屬陰 遇氣多鬱 是以男子之氣病常少 女人之氣病常多”⁴⁾라고 하였고, “氣結則生痰 痰盛則氣愈結”⁴⁾이라고 하여 氣病이 많은 여성에게 七情鬱結로 氣가 맺혀서 발생하는 痰飲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氣가 盛하여 火病이 많다고 하였는데¹¹⁾ 火는 痰의 근본이요, 痰은 火의 지표가 되어¹²⁾ 여

성에게 火病으로 인한 痰飲이 잘 생길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여성에서 질환의 원인으로 痰飲의 위치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東醫寶鑑》⁴⁾에서 痰飲과 관련된 여성 질환을 찾아보면 먼저 여성의 월경과 관련해서 무월경이 생길 수 있다. 주로 비만하여 痰濕이 많은 경우에 대사 장애를 일으켜 난소의 기능이 저하 혹은 위축되어 經遲證 또는 無月經이 될 수 있으며¹³⁾, 氣가 鬱結되면 痰火가 熾盛하여 나타날 경우 通經湯을 사용한다. 월경색은 질병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색이 흐리거나, 그 음음이 섞인 물 같은 것, 초가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같은 것, 팔죽 빛깔이 나는 것, 누런 빛을 띠는 것도 濕痰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 帶下의 원인은 다양하나 임상 상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濕을 동반한 증상인데 痰濕의 형태로 胞宮에 下注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痰飲으로 인한 경우는 肥人에게 많이 나타나며 虛證의 경우는 희거나 연한 황색을 띤 묽은 대하가 나오고, 熱을 겸하면 황색의 냄새가 나는 대하가 나온다^{13,14)}.

임신할 때에도 비만한 여성은 痰飲이 胞宮을 막아서 精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임신하기 힘들다. 妊娠惡阻의 대표적인 원인을 痰飲으로 보아 二陳湯類에 隨證加味한다. 瘦人이 痰熱이 많은 경우는 二陳湯에 黃芩 黃連을 가하고, 肥人이 濕痰이 왕성하면 二陳湯에 竹茹 生薑을 가하고 胃는 虛하지 않으나 傷食으로 痰이 왕성하면 二陳湯에 砂仁 香附子를 가하고, 心下痞, 胸悶 등의 증상을 겸하면 枳殼을 可用한다¹³⁾고 하였다. 임신 중 소변불통 증상인 轉胞證도 痰飲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출산시 痰熱이 乘心하여 產後不語하며 痰涎聲이 있고 面熱 胸高 등의 증상이 있으면 二陳湯에 南星 黃連을 가하고¹³⁾ 產後에 氣血이 부족할 때 風邪가 痰飲과 겸하여 침입하면 產後風痙가 발생한다.

여성의 下腹腔內에 생기는 여성 고유의 腫塊인 癥瘕는 痰飲, 食積, 死血 등의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 중 腸覃은 현대의 난소낭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氣病으로 보아 二陳湯 加減方을 사용하였다^{13,14)}. 유방에는 다양한

형태, 크기, 수량의 증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음식 부절로 濕熱之痰이 膈間에 쌓이면 乳癰이 생기게 되며, 乳癰에 해당하는 섬유낭종성 변화나 섬유선종과 같은 양성 종괴도 有形의 痰塊의 범주에서 볼 수 있다^{14,15}. 氣鬱하면 濕이 막히고, 濕滯하면 熱이 생기고, 熱鬱하면 痰이 생기고, 痰滯하면 血이 잘 돌지 못하고 血滯하면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여 痞塊가 생긴다⁴고 하여 기병이 생기기 쉬운 여성에게 자궁, 난소 및 유방 등에 양성 종괴가 생기기 쉬움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피부, 비만 등의 미용에서도 痰飲이 원인이 되어 기미와 비만이 유발될 수 있다. 痰飲의 원인에서 음식부절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비만치료도 부인과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비만 여성은 정상체중 여성에 비하여 월경질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무배란을 동반한 불규칙적인 월경의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체내 여성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또한 난소 비대와 난소표면의 작은 난포가 존재하며¹⁸ 다모증, 비만, 무월경 등을 동반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도 대개 불임을 동반한다^{19,20}.

《東醫寶鑑》⁴에서는 비만의 유발 요인으로 穀氣勝元氣, 脾胃俱旺, 脾胃俱虛, 脾困邪勝, 痰飲, 氣虛, 血實氣虛, 華食, 數食甘美와 膏粱厚味을 언급하고 있는데²¹ 肥人에게는 痰飲이 많고, “痰飲者 水停腸胃 漉漉有聲 令人暴肥暴瘦 宜神朮丸”이라고 하여 痰飲으로 인하여 暴肥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痰飲의 대표적인 처방인 二陳湯을 투여하여 체중감소와 배란율, 체외수정율을 증가시키고²² 化痰燥濕, 理氣調經하는 蒼朮導痰湯을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에 이용한 연구¹⁸ 등에서 痰飲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만한 여성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불임, 무월경,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고 있다.

梅核氣는 그 원인이 七情鬱結로 인하여 七氣가 結하여 痰涎이 發한 것이므로 부인에게 多發한다고 하였으며²³ 疝證은 주로 남성이 任脈에 병이 든 것을 말하며 여성에 있어서는 瘕聚라고 표현하지만⁴, 여성에게 疝瘕는 난소낭종의 莖捻

轉痛이나 성기의 염증을 병발한 근종 및 낭종 등의 증후군에 해당¹³하여 濕熱 痰飲으로 유발된 疝痛을 이 범주에서 볼 수 있다. 이외에 驚痰, 脫毛 등에서도 痰飲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女以血爲主”⁴라고 하여 여성 질환을 치료할 때 補血, 活血祛瘀의 治法은 多用하고 있는데 痰飲은 瘀血과 不同한 病理產物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靈樞 邪客篇》²⁴에서는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이라고 하여 津液이 轉化하여 血이 된다고 설명하여 津液으로 인한 痰과 血을 本으로 하는 瘀血이 同源이 됨을 말하고 있다. 《醫學入門》¹²에서는 “痰乃津血所成”이라고 하였는데 痰은 津血이 변성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痰多挾瘀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血證論》²⁵에서는 “血積既久 亦能化爲痰水”라고 하여 先爲瘀하고 後有痰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며, 痰阻則 血難行하고 血瘀則 痰難化하며 痰滯日久하면 必致血瘀하고 瘀血內阻하면 久必生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²⁶. 그러므로 痰飲과 瘀血을 서로 유관된 것으로 痰으로 血瘀가 발생되기도 하고 血瘀로 痰이 형성되기도 하며 痰·瘀가 서로 겸하여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어혈병태모형 연구에서 혈전증, 혈소관수, fibrinogen 함량 및 prothrombin time 측정, 고점도 혈증, 외상모형, 혈관신생 모형 등을 이용하여 瘀血의 실험 모형을 설정하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²⁷. 痰飲과 瘀血이 서로 연관이 있으나 이러한 모형으로 담음병태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有形의 痰飲이 아닌 無形의 개념으로 痰飲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痰飲의 병태모형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실험적으로 二陳湯의 효능을 본 결과 대뇌피질성 경련에 억제효과, 중추신경의 진통효과, pentobarbital의 수면시간 연장효과, 회장관의 自動運動 억제, 抗瀉下效果, 자궁의 수축 억제효과, 모세혈관 수축작용, 혈압상승작용, 위액분비억제 효과에 의한 항궤양효과를 확인하여²⁸ 이러한 결과물을 痰飲과 연관시키고 있다. 주로 소화기계, 호흡기계 관련하여 痰飲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요즘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 스트레스,

생활 환경 변화로 痰飲으로 인한 질환 늘어나고 있으며 부인 질환에서도 痰飲이 병인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痰飲에 대한 치료를 부인 질환에 많이 응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여성 질환의 원인과 관련된 痰飲에 관하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痰飲으로 인한 여성 질환은 經帶胎產에 관련하여 無月經, 月經色變化, 帶下, 不妊, 妊娠惡阻, 產後不語, 產後風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痰飲으로 인하여 癥瘕, 乳癰, 乳房腫塊가 나타날 수 있다.
3. 기타 질환으로 驚痰, 기미, 비만, 疝症, 脫毛, 梅核氣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4. 痰飲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여성은 氣病과 火病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한 痰飲이 여성 질환에서 중요하다.

V.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서울: 한의문화사 2001;69-81.
2. 문준전, 안규석, 최승훈.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70-74.
3. 박원환, 최달영. 痰飲에 對한 文獻의 考察. 韓醫大 研究所 論文集. 1992;1(1):141-160.
4. 허준. 新編·대역 東醫寶鑑. 서울: 범인문화사. 2005.
5. 장인규, 박동원, 유봉하 등. 痰飲의 原因·症狀·治法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986;7(1):160-169.
6. 洪元植.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1971;225, 250, 255.
7. 張機. 金匱要略. 台北: 文光圖書公司. 1959;411-417.
8. 康命吉. 齊象新編. 서울: 杏林書院. 1965;82.
9. 樓全善. 醫學綱目. 台南: 北一出版社. 1973;16-30.
10. 김동규. 痰飲에 關한 文獻의 考察. 東西

- 醫學. 1986;11(3):50-61.
11.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서울: 芝山出版社. 1996;361.
12. 李槌. 新校編註醫學入門(下). 서울: 大星文化社. 1994;162-165,265.
13. 송병기. 漢方婦人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8;187-188,234,249-253,261,301,478.
14. 韓醫婦人科學 編纂委員會. 韓醫婦人科學(上).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2;268-269, 303-307,322-329.
15. 박찬국. 病因病機學.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2;459-472.
16. 장길전. 여성생식의학. 서울: 대관출판사 1998;219.
17. 이득주, 장기홍, 한인권 등. 임신 생식관련인자와 비만 위험. 대한비만학회지. 1995;4(1):51-57.
18. 양승정, 조성희, 박석천 등. 蒼朮導痰湯이 estradiol valate로 유발된 백서의 다낭성 난소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15(2):1-11.
19. 구병삼. 임상부인과내분비학. 서울: 도서출판 고려의학. 1997;185.
20. 노재숙, 유중배, 문형 등. 배란장애를 동반한 다낭성 난소인 여성에서 혈중 inhibin 농도의 증가. 대한불임학회잡지. 1998;25:93-102.
21. 김석, 진승희, 김태희. 東醫寶鑑을 위주로 한 비만의 原因, 症狀, 治療法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8;19(2):125-136.
22. 최정은, 조정훈, 장준복 등. 二陳湯의 肥滿생리의 卵巢機能에 미치는 影響.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3;16(2):68-75.
23. 임락철, 노석선. 梅核氣의 原因·症狀·治療에 對한 文獻의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989;10(1):249-255.
24.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298.
25. 唐宗海.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88.
26. 朴元煥. 痰飲病態模型의 開發을 爲한 痰·癥 同源理論의 文獻의 考察. 東西醫學. 1992;17(2):60-73.
27. 안규석, 박종현, 박경모. 癥血病態模型 개발에 관한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9;13(1):25-35.
28. 류성규. 二陳湯의 效能에 關한 實驗의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84;5(1):106-122.